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4dd363b22206f3e6d3b7e56a50d2430f5b392512a47382d860aadf62b72c3bc7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 노동시장 및 경제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

- 미국 뉴욕 연은, 2/4분기 가계부채 증가폭은 14년래 최대 수준
- 미국 기업의 2/4분기 실적, 당초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
- JP Morgan, 코로나 19 감염이 미국 경제를 회복 경로에서 이탈시키지 못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기업실적 호조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

-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8%, 0.2% 상승
*양호한 기업실적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S&P500 지수는 마감 기준 사상 최고가

- 환율*: 달러화지수 강보합. 유로화 0.1% 절하, 엔화는 0.3% 절상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엔화가 강세

-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하락, 독일 상승, 영국 약보합

*미국은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관망 분위기 속에서 소폭 하락

■ 국내금융시장: KOSPI 0.4% 상승*. 원/달러 NDF환율 (1149.2원) 약보합, CDS 강보합

*외국인의 반도체 관련주 매수 등이 견인

	8/3일	8/2일	전일대비		8/3일	8/2일	전일대비	
미국 Dow	35,116	34,838	0.80%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1.17%	1.18%	-1bp
유로 Stoxx 600	465.38	464.45	0.20%		독일	-0.48%	-0.49%	1bp
중국 상해 종합	3,448.0	3,464.3	-0.47%		영국	0.52%	0.52%	-0bp
일본 Nikkei	27,642	27,781	-0.50%	한국 CDS 5y	19bp	19bp	0bp	
KOSPI	3,237.1	3,223.0	0.44%	영국 CDS 5y	9bp	10bp	-0bp	
달러화 지수	92.08	92.05	0.03%	중국 CDS 5y	39bp	39bp	0bp	
유로화	1.1864	1.1870	-0.05%	EMBI+	-	369	-	
엔화	109.04	109.31	0.25%	VIX	18.04	19.46	-7.30%	
위안화	6.4703	6.4621	-0.13%	WTI유	70.56	71.26	-0.98%	
파운드화	1.3916	1.3883	0.24%	두바이유	71.75	72.90	-1.58%	
원화	1,148.3	1,150.9	0.23%	금	1,810.4	1,813.5	-0.17%	

주: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 기준(+/-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주요국 동향 및 경제지표

■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 노동시장 및 경제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쉽지 않지만, 1000만명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 양육 부담,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급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 연준의 보우먼 이사도 최근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발언. 상당수의 노동자가 일자리 부족 혹은 업종 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많은 가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첨언
- 다만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성장과 향상된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금리 상승도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이에 위기 시대에 시행했던 통화정책을 종료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 미국 뉴욕 연은, 2/4분기 가계부채 증가폭은 14년래 최대 수준

- 같은 기간 총 가계부채는 3130억달러 늘어난 14.96조달러. 주택 관련 부채가 2820억달러 증가한 10.44조달러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 경기회복 영향으로 자동차 매입을 위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증가

■ 미국 기업의 2/4분기 실적, 당초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

- Refinitiv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2/4분기 이익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90%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는 7월 초(65.4%) 추정치에 비해 높은 수준. 다만 이익증가율은 2/4분기에 정점을 지나고, 3/4분기부터 다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IMF,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발행 승인

- 세계 경제를 돕기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가 이번 결정의 목적이라고 설명. 이번에 증액된 SDR은 현재의 기여 비율대로 회원국에 배분되며,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 약 2750억달러가 할당될 예정. 신규 SDR은 23일부터 발효
- 한편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 암호화폐 사용의 확대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불법적 행태와 결합되어 금융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위한 권한 확대를 요청

-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과거 무법 천지였던 서부 개척시대와 유사하며, 가격 조작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 또한 규제의 빈틈을 노린 신규 화폐와 플랫폼 등이 출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

■ JP Morgan, 코로나 19 감염이 미국 경제를 회복 경로에서 이탈시키지 못할 전망

- 제이미 다이몬 회장은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후 다시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설명. 또한 코로나 19 감염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

■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예정대로 9월부터 채권매입을 축소할 방침

-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하여 시장 예상에 부합. 다만 채권매입 축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영향 등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에서 제기. 인플레이션이 2~3%의 목표 범위에서 유지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

■ 주요 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하여 석탄 화력발전의 폐지를 추진

- 푸르덴셜, 씨티, HSBC, 블랙록 등이 이번 계획에 참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매입한 이후 당초 예정보다 짧은 15년 이내에 폐지를 추진. ADB는 아시아 국가의 정부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 터키의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8.95% 상승하여 예상치(18.6%) 상회

- 같은 달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22%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장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제조업수주(전월비): 1.5%, 5월(1.7%), 예상치(1.0%)
-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10.2%, 5월(9.6%), 예상치(10.3%)

■ 주요 경제 이벤트(8/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연준 클라리다 부의장 강연,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경기지수
- 미국 7월 ADP 민간고용, 미국·유로존·영국 7월 마켓 서비스 PMI
- 유로존 6월 소매매출,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 PMI, 호주 6월 소매매출

해외시각 및 시장평가

■ 해외의 소극적인 중국 투자, 중국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 - Financial Times

(Why it might be good for China if foreign investors are wary)

- 중국 금융당국은 과잉저축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 이는 국제금융시장 내 위상 강화와 위안화의 국제화가 목적. 하지만 해외투자 자금 과다 유입은 위안화 수요에 따른 통화가치 상승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우려
- 또한 해외투자 유입이 과도할 경우, 국내 신용팽창과 자산버블을 유발할 가능성. 중국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도 여타 신흥국 사례와 같이 국제수지 불안으로 연결. 따라서 중국은 해외의 대중 투자 축소에 과도한 대응은 불필요

■ 시장의 미국 경기회복 전망, 향후 성장세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 - 블룸버그

(Wall Street Is Underestimating the Economic Recovery)

- 지난 주 미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과 개인소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주요 투자은행은 2022년 말 성장률이 1.5~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이는 과거 경제의 장기적 성장 성향에 기인한 보수적인 전망
- 하지만 향후 경제 재개에 따른 고용 부족 해결과 자동화, 업무효율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을 감안할 때 내년 말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큰 폭 상회할 가능성. 아울러 경제 전면 개방 지속으로 성장세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바이든 정책의 정치적 약점으로 부각될 소지 - Financial Times

(America's recovery: is Joe Biden's presidency vulnerable to inflation?)

■ 연준의 달러화 관리, 과거 금 본위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 WSJ

(Lessons for Today From the Gold Standard)

■ 미국 국채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혹은 물가 방향성 제시와 무관 - 블룸버그

(The Bond Market's Very Misleading Messag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